레포츠에 복고 바람 불황속 '※'이 뜬다

〈당구장〉

탁구·볼링장 등 쇠락 길 걷다 중년층들 다시 발길

쇠락의 길을 걷던 당구장과 탁구장이 부활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당구장에서 직장인들이 당구를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젊은이와 직장인들이 모이는 대학가나 도심에서 반가운 간판을 만나게 된다. 당구장과 탁구장이다. 노래방과 PC방에 밀리며 쇠락의 길을 걷던 당구장과 탁구장이 불황속에서 복고바람을 타고 부활하고 있다. 특히 '얼짱' 당구스타 쟈넷 리와 차유람, 꽃미남 탁구스타 유승민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여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부활하는 '※'=1970~80년대 일부 대학생에게는 당구장이 집이나 다름없었다. '30'으로 입문해 여름방학땐 '100'이 된다. 그 때쯤이면 '밥상'과 '천정'은 당구대로 변하고, 그 위에 '삼각함수'를 그렸다. 졸업 즈음 '300'은 기본이 됐다.

줄서서 기다리던 당구장은 1990년대 중반 노래방·PC방이 유행하면서 멀어졌다. 그러다 최근 중년이 된 그들이 다시 '큐'를 잡기 시작했다. 주머니가 얇아진 직장인들이 비용을 줄이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당구장을 찾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만 해도 2004년 555개였던 당구장이 2007년 633개, 지난해 781개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자욱한 담배연기, 청소년 탈선 장소 등 부정적 이미지가 쾌적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탈바꿈하면서 건전 스포츠라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 얼짱 스타 쟈넷 리와 차유람의 인기도 한몫 했다. 이들 덕에 포켓볼을 즐기는 젊은 여성들도 쉽게 볼 수 있다.

'500' 실력을 가진 직장인 박용규 씨는 "친구나 동료끼리 가볍게 술 한잔하고 당구를 한두 게임 치면, 자리를 옮겨가며 술 마시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좋다"고 말했다. 당구장 이용료는 10분당 1천~2천원선으로, 4명이 2시간을 보내도 2만원 안팎이면 된다.

◇뚝심의 탁구=탁구는 뚝심으로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탁구의 전성기는 1970~80년대였다. 직장의 휴게실에 놓여있던 탁구대는 언제나 붐볐고 사설탁구장에서도 줄을 서야 했다. 그러나 90년대말 위기가 찾아왔다. 노래방과 PC방이 탁구 인구를 모두 데려가 버렸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생활스포츠 활성화 정책과 탁구협회의 대중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2000년 이후부터 탁구인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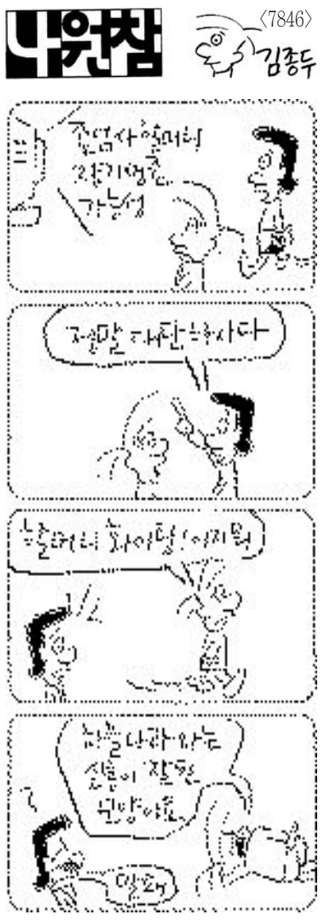
광주시탁구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 25개에 불과하던 탁구 동호회가 현재는 50여개로 늘었다. 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은 동호회까지 합하면 70여개가 넘는다. 2005년 1천500여명이었던 탁구 인구도 2천500여명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자치회 등에서 즐기는 탁구 인구까지 합치면 하면 5천여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엔 짜릿한 볼링=1980~90년대 볼링의 인기는 대단했다. 웬만한 대형건물 입구와 옥상에는 대형 볼링핀이 볼러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볼링장이 사라지면서 볼링의 인기도 점차 식어갔다.

그러다 경기침체 덕에 최근 볼링인구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짜릿한 '스트라이크' 한방은 그 어떤 운동과 비교할 수 없다. 볼링은 근력과 하체를 강화시켜준다. 여성들의 경우 밸런스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볼링은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와 두뇌발달 등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스포츠다.

특별한 준비없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볼링의 또 다른 매력이다. 가벼운 옷차림이면 되고 슈즈나 볼은 볼링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막나가는 10대들

성매매 유인 폭행·금품 강탈

광주북부경찰은 3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A(16)양과 B(17)군 등 10대 6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3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25)씨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모텔로 유인해 현금 10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 8차례에 걸쳐 남성들로부터 2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양 등이 성 구매에 나선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 이름과 방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면 나머지 5명이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느냐"며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레이싱모델 탈의실 턴 4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3일 다중이용시설의 탈의실과 수면실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A(40)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F1&월드슈퍼카쇼' 행사기간 레이싱모델 탈의실에 침입, 모델 B(여·27)씨의 현금과 금반지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17일 서구 치평동 모 요가학원 탈의실에서 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행사장과 탈의실, 수영장 수면실 등에서 20여차례에 걸쳐 1천17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이 시끄럽다

초등교장·女교사·지역일간지 기자 얽히고 설킨 치정·금품수수에 '벌집'

초등학교 교장과 여교사, 지역 일간지 기자가 얽히고 설킨 '치정 및 갈취 사건'으로 순천 지역사회가 벌집 쑤신듯 시끄럽다.

기자의 집 앞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고 병원에 입원한 초등학교 교장 〈본보 3일자 7면 보도〉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해소동의 배경이 된 사건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경찰은 8명의 형사를 배정해 이 사건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자해 후 음독소동을 벌인 모 초등학교 A교장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교사 B씨를 2일 오후 불러 5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데 이어 조만간 문제의 일간지 기자 C씨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여교사 B씨는 C씨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모 지역신문에 '현직교장, 여교사와 불륜의혹 충격'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서부터다. 모 인터넷방송 보도를 인용한 이 기사는 'A교장이 지난달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B교사와 벌교읍 소재 모 모텔을 출입했으며 본인들은 생일케익만 잘라먹고 나왔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A교장은 보도 다음날인 2일 이 보도가 C기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C기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에서 자해·음독했다.

문제는 A교장과 C기자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이다. A교장은 지난 4월 B교사를 C기자에게 며느리 감으로 소개시켜주었으며 이후 B교사와 C기자의 아들은 교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A교장과 B교사 사이가 공적관계를 넘어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나면서 A교장과 C기자의 관계는 악화됐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A교장은 C기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경찰은 당초 혼사까지 생각한 C기자가 소문의 일부를 확인한 뒤, 이들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는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교사는 이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며 C기자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한 상태여서 C기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C기자가 A교장에게 자술서를 강요하는 과정에 또다른 기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 연루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교장이 왜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C기자가 협박을 했는지, 관련자들은 모두 몇 명인지에 대해 중점 수사하고있다"며 "불륜과 협박이 사실이라면 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과 이를 틈탄 갈취가 어우러진 추악한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흉기로 복부를 4차례 찌르고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A교장은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고흥 앞바다 기름띠 해경 긴급방제 나서

3일 오전 8시40분께 고흥군 도양읍의 한 조선소 주변 300m 이내 바다에 기름띠가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경이 긴급방제에 나섰다.

해경은 바다 쪽으로 기름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경비정 2척을 현장에 보내 조선소와 고흥군 수협, 도양읍사무소 등과 함께 흡착포 등을 이용해 기름띠 제거 작업에도 착수했다.

여수해경은 이 기름이 경유와 벙커A유의 혼합유인 점에 비춰 조선소에서 유류 바지(barge)선을 해체하는 도중에 배에 남아있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유출량과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불전함 시줏돈 슬쩍 강진경찰 20대 검거

강진경찰은 3일 법당 내 불전함에서 시줏돈을 훔친 김모(21)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께 강진군 모 사찰 법당 내에서 신도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불전함에 든 시줏돈 5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가족과 사찰을 찾았다가 불전함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법당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힌 김씨의 얼굴을 토대로 탐문수사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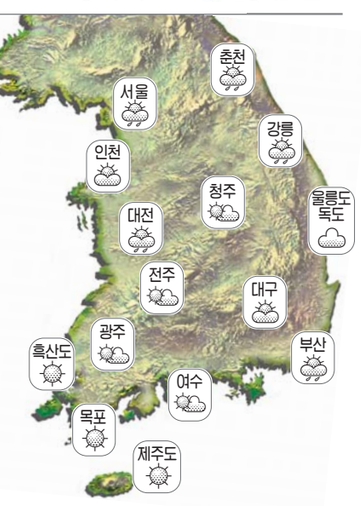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3분 해짐 19시 51분 달뜸 17시 30분 달짐 02시 22분

국지성 소나기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맑은 뒤 흐림	19/30℃
목 포	구름 조금	19/27℃
여 수	맑은 뒤 흐림	20/26℃
완 도	구름 조금	19/28℃
구 례	소나기	18/31℃
해 남	구름 조금	19/28℃
장 흥	구름 조금	18/29℃
고 흥	맑은 뒤 흐림	17/28℃
순 천	맑은 뒤 흐림	19/30℃
영 광	맑은 뒤 흐림	18/27℃
진 도	맑은 뒤 흐림	19/28℃
전 주	맑은 뒤 흐림	19/28℃
남 원	맑은 뒤 흐림	19/28℃
흑산도	구름 조금	19/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0.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0.5m

	밀물	썰물
목포	00:05 11:48	05:37 17:19
여수	06:43 19:51	01:12 12: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날 씨						
최저/최고	20/32	21/31	22/27	22/29	22/30	22/29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송환

리스트 관련 전면 재수사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3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KE706)에 탑승해 정오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당초 이날 낮 12시55분 나리타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신병을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언론 노출을 꺼리며 시간 변경을 요구해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태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3월4일 다시 일본으로 넘어간 김씨는 같은달 7일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도 계속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4일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김씨는 이날 비행기 탑승 직후 우리나라 경찰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김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 수사관 1명과 경찰청 인터폴계 직원 1명에 이끌려 비행기에서 내렸다.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덮어쓰고 짙은색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김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심경을 말해달라", "장씨 죽음에 책임을 느끼나", "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있나"는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장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김씨를 추궁하고 여러가지 혐의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4월24일 수사대상자 19명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 검거 이후로 수사를 보류한 바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탤런트 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분당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낸다 빠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과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불편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 밖에 없다"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게 하면 불편이 줄고 체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는 국세와 관세도 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장' 男 마을회관 돌며 도둑질

쌍나팔

○…생필품을 훔치기 위해 여장(女裝)을 한 채 농촌지역 마을회관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서행.

○…담양경찰은 3일 마을회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장모(35)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일 새벽 1시께 담양군 담양읍 모 마을회관 방충망을 뜯고 침입, 쌀 20kg들이 2가마, 라면 3박스 등을 훔치는 등 마을회관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최근 수년 동안 외출할 때 여자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자인 것 처럼 행동해왔으며, 집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하다 생필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감행.

/담양=노정훈기자 cjob17@